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오즈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경 토니 (안토니오)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TOP Lawn Maintenance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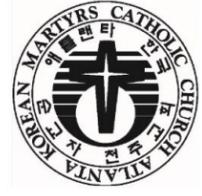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스와니 교정 치과
 교정전문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 상담 (suwaneeortho)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만천홍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GIFTS GOLD-CROSSES-REPAIRS
성물점
 • 십자가, 선상 • 금, 은, 주문제작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리-서츠 프린팅
 Suwanee Wal-mart 내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096호 2021년 5월 23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 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 오후 1시 (영어미사) 매일
 - 첫째, 셋째 주일 봉헌
 - 월: 없음
 - 화: 정오 12시
 - 수: 오후 7시 30분
 - 목: 오후 7시 30분
 - 금: 정오 12시
 -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19-23>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2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본당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사목회장
 성정창 풀젠시오
 Fulgentio Jeong Seong
 470-296-1030
 kmccga.seong@gmail.com

성 가	입당: 147	봉헌: 342	성체: 182/164	파견: 142
제 1 독서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 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2,3-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 알렐루야.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영 성 체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병 중에 계신 분들

- 김미영(인덕마리아)
- 김송옥(데레사)
-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 민병숙(라파엘라)
- 박덕자(빅토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평하(요한)
- 유옥희(모니카)
- 이금숙(세실리아)
- 이수진(브렌다노)
- 이창옥(크리스티나)
- 조경희(글라라)
- 채중현(아오스딩)
- 최대일(프레드릭)
-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1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 구역분과
고영호 770-827-9987
- 성모회
이남수 770-310-4546
-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박순기 678-793-5881

- 레지오 마리아
왕희숙 352-359-4283
- 성령기도회
오영숙 404-518-5881
- 울뜨레아
이경환 678-713-4650
- M.E.
손영덕 678-896-1837
- C.L.C.
이형주 404-409-1220

신앙체험 수기 수상작

● 우수상

하느님 사랑속에 나는 샅대가 되어

20년 전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 섰던 그 날. 마침 사순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처음 만난 하느님, 십자가를 멘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각자 긴 수녀님의 손을 보며 나도 두 손을 모아 단단히.. 풀어지면 절대 안되 듯.. 두 손을 모아 십자가의 길을 함께 했다. 오직 내 귀에 들리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쏟아졌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해 7월 첫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새로운 딸 박선미 데레사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 기쁨은 얼마나 컸었는지..나를 알아보신 하느님! 큰 기쁨으로 참여했던 미사의 은혜로움은 하느님께 두 손 각자 끼고 영원한 약속으로 맺어짐을 늘 기억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날의 '선택'으로 서투른 어른으로서 책임과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 크고 작은 고민과 이해의 갈등속에서 만난 하느님은 기쁨과 슬픔을 알맞게 조율해 주셨다. 하느님의 선물은 남편과 아이들과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 주셨다.

언제쯤일까.. 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의 기쁨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만을 기억할 뿐 순간 순간 하느님을 갈망했던 시간은 나의 세상 속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첫 사랑의 기억은 이런 걸까.. 처음 받았던 사랑의 선물을 봤을 때 불현 듯 생각나 그리워지는 아련한 마음. 그런 첫 사랑의 기억처럼 순간 순간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반복할 때 깨달음이란 온통 핑계 거리 뿐이었다. 성경 말씀은 물론 성삼위는 누구인지, 전례의 거룩함도,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지, 나눔이 무엇이고 성사가 무엇인지 신앙적 지식은 예비자 교리 공부가 전부였던 나는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지만 성당에 가지만 하면 모든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즐겁고 기쁜 성당 생활 될 줄 기대 했던 것 같다. 무지를 방관하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두운 신앙으로 나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었다.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 할 때 손잡고 지켜 주시는 분. 나의 신앙 생활이 었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전부였다. 처음 하느님 곁에 다가갔던 순간의 깊은 고민과 갈등속에서 눈물로 만났던 하느님을 나는 항상 핑계를 앞에 두고 멈춰 서 있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적당한 도움과 친교를 통해 얻는 개신교의 이로움을 말하는 친지에게 나의 믿음은 가톨릭적이고 성당으로 가야 할 나름의 이유를 서로 언성을 높이며 가정의 작은 종교 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보란 듯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미사 참여를 잊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먼 곳의 그리움이 밀려왔던 것 같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좋았다. 새로운 아들 딸로 세례를 받는 가족이 있어 좋았다. 조금 더 하느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소위 발 바닥 신자라고 하는 아주 비루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 곳 순교자 성당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공동체에서 함께 친교의 기쁨도 누리며 지나온 신자 생활은 기쁨

냉담

으로 하느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주님을 찬미하며 빠짐없는 주일 미사는 나는 바른 신앙인 답게 생활해 왔다. 창피하지만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 생활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르며 20년을 오게 하였다. 나는 스스로 귀 먹고 눈 먼 장님이 된 채 어떠한 신앙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냉담은 끝났던 것이 아니라 늘 지속되어 오지는 않았을까.. 작은 번민이 늘 나를 때린다고 해야 할까.. 흔들어 놓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통하여 너무도 자연스런 이끌림으로 지금까지 비루한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느님 사랑을 넘치 듯 받았던 순간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무지했고 부족했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에 이 기쁜 체험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되찾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 7주간 말씀 묵상을 시작으로 하느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기준도 편견도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증거하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 말씀은 나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좀더 친밀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 같다. 또한 미사 시간을 통해 늘 하느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이해와 복습적 학습을 이루시는 신부님의 강론은 내가 신앙인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온갖 양분을 채워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다. 지혜로운 자보다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 늦지 않게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새로워지는 나를 보는 즐거움, 기쁨 또한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영원한 선물은 나의 실질적 외면과 내면 오랜 외면을 하느님께서 오랜 기다림으로 당신과의 대화를 이루도록 초대해 주신다. 어리석은 나를 긴 시간 포기를 모르고 외롭게 내 곁을 함께 하셨을 하느님,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느님... 저를 눈물로 더 이쁘게 화장시켜 주시는 하느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총' 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에 급급한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되는 당신의 자녀로 깨우쳐 주시니까 조금씩 알아오신 하느님 이심을 나는 안다. 하느님의 관계속에 머물며 비루한 신앙인이 아닌 말씀과 성찰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 갈 때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노력하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뜻대 같은 하느님 사랑 속에 나는 샅대가 되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지혜를 내게 주시리라 믿는다.

먼 곳에 있는 것만이 그리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이 그리움이 되고 있는 오늘.. COVID 19에서 자유로워지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느님! 제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대건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봄학기등록안내



- 모집 대상 :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기간 : 2021년 1월9일~5월1일 (16주간)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어사
- 특활과목 :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날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일자 : 12/5 (추가등록:12/6~1/9)
- 등록금 :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 등록장소 :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 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 KMCC Daegon Korean School

특목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장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용방법

-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SO GOOD (파티, 웨딩드레스 전문점)



Duluth 매장: 678.474.7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www.sogoodbridal.com
www.sogoodbb.com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1년 AA 기금 납부 현황 (5월 16일 현재)

교구 할당액: \$57,900

누계 약정액: \$22,820

금주 납부액: \$540 누계 납부액: \$29,550 달성율: 51.0%

2021 AA 기금 금주 납부자: 7명

김상순 김영배 박재석 박재현 서재욱 이성철 이종길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AA 기금 약정을 부탁드립니다.

< 성모회 물품 판매 >

성모회에서 주일 오전에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 목주기도 >

5교황님께서 5월 성모 성월 한달간 COVID-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신자들의 목주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미사 30분전에 목주 기도를 봉헌하니 교우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유아 세례식 >

5월 15일(토) 오후 3시에 본당 신부님 주례로 대성전에서 최은우(헬레나), 임이안(이안) 2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2021 페루 선교 후원금 모금 >

페루 선교 후원금 모금을 주일 오전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실시합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자

< 요한 20,19-23 >

배영길 베드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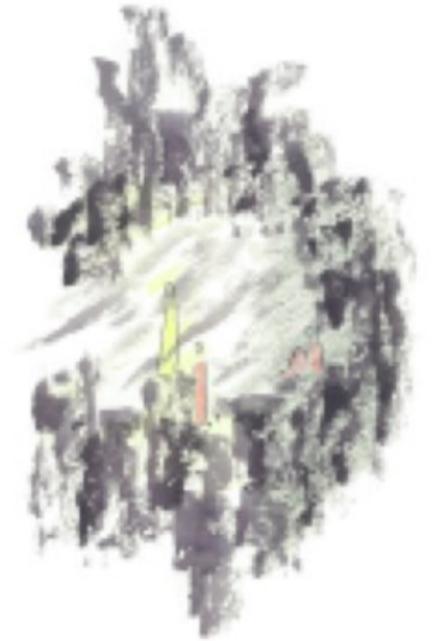
평안하나?
괜찮아?

이제,
가자.

이젠,
나가자.

이만하면
충분하니

이젠 가자.



숨을 쉬며 사는 동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삶을 질서있게 하고, 사람을 성실하게 합니다. 커다란 두려움은 삶을 고단하게 하고, 사람을 경직되게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은 삶에서 고립되게 하고, 사람을 격리시키고 소외시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빚처럼 그들 한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눈앞에 뵈고, 귀에 익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어찌할



오늘 복음 산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 20,19-23 >

줄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다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못이 박혔던 당신의 두 손과, 창에 찢렸던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무언의 다짐을 하듯 안심을 하고, 주님을 믿고 다시금 뵈고 기뻐합니다.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듯이 다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다시

긴장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어깨를 지긋이 잡으시고, 그분의 녹아내릴 듯한 눈빛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OOO 야, 성령을 받아라."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 "라자로 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실 때처럼 위엄과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어라."

죄의 본질이 소외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과 용기라고 합니다.

성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는 나에게 있어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들의 정성 (2021년 5월 16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264명	
특전 미사	38명	오전 8시 30분	82명
오전 10시 30분	113명	영어 미사	31명
청소년 기금	\$ 3,000.00	감사헌금	\$ 300.00
교무금	\$ 3,930.00	주일헌금	\$ 3,334.00
온라인 교무금	\$ 600.00	온라인 주일헌금	\$ 332.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1년 5월 16일)

김세경 (3)	유성렬 (4~6)	조소춘 (4~5)
김영혜 (5)	유성복 (3~6)	진성수 (1~12)
김태규 (5)	윤봉권 (1~6)	천정수 (5)
김호진 (4)	이경우 (5)	한성인 (6)
박재현 (5)	이광자 (5)	허석호 (5~6)
박평하 (5)	이석균 (5)	
석영길 (1~5)	이성철 (4)	
손상규 (4~5)	이중자 (4)	
손아혜 (4~5)	임근범 (5)	
손철영 (5)	장승희 (5)	
안현웅 (3~4)	정복순 (4)	

금주 후원금

청소년 기금	성모회
Covid-19 Fund	-
감사헌금	김향순
Angela Fund	-

미사 위생 지침이

	5/23	5/23	5/25	5/26	5/27	5/28	5/29	5/30	5/30	6/1	6/2	6/3	6/4	6/5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주일 10: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토 7:00
체온측정 1 (정)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이상용	고영호	김성애	신인균	신은경	김유니스	박희진
체온측정 2 (부)	-	-	-	-	-	-	-	-	-	-	-	-	-	-
안내/방역 1 (정)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이영숙	박재석	원선미	이숙자	오영숙	이영숙	유성희
안내/방역 2 (부)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이숙자	오영숙	-	-	-	-	연규정
안내/방역 3 (부)	서상희	원동훈	-	-	-	-	-	서상희	원동훈	-	-	-	-	-
안내/방역 4 (부)	-	남혜원	-	-	-	-	-	-	남혜원	-	-	-	-	-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5/22 (토) 오후 7:00	이지연	서현규 허재	-
5/23 (일) 오전 8:30	김현숙	신인균 신은경	-
5/23 (일) 오전 10:30	이경환	최창희 김선민	-
5/29 (토) 오후 7:00	강성남	김주환 허재	-
5/30 (일) 오전 8:30	이진화	이종길 이은경	-
5/30 (일) 오전 10:30	강창미	이국진 이정란	-

예수회 후원회 증 강의 안내

◆ 5월 18일 (화) 오전 10시 - 이곳 시간 17일 (월) 오후 9시
정제천 신부님- 성모님처럼 기도하기
줌 ID: 979 720 4403
비밀 번호: 1
<https://us02web.zoom.us/j/9797204403?pwd=WEtHK0llaWZmTWtmTnhPUlVqRmlGUT09>

◆성모회 물품 판매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재배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들을 판매합니다. 참기름, 도토리 국수, 고사리, 병아리콩 등등. **판매장소**- 주차장내 장터 판매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8일 故 송희성 (레오나르도)님의 장례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순교 일지 2021년

일시: 2021년 11월 27일 (대림 1주일 전날)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을 맞아 일상 안에서 ‘작은 죽음’을 살아가며 ‘순교 영성’을 살아 가기를 초대합니다.
▶2021년 11월 28일(대림 1주일) 교중 미사 때 ‘순교 일지’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문의: 이숙자 (678-665-3882)

2021 페루 선교 후원금 모금

후원금 모금: 5월에 계획되었던 페루단기선교가 취소됨에 따라 페루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 방법: 주일 오전 8:30 및 10:30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함. (수표는 Payable to: "KMCC")
후원금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를 통하여 페루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문의: 김용준 (770-895-1000)
Email: jayoooin10@hotmail.com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봉헌

교황님께서 5월 성모 성월 한달간 COVID-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신자들의 묵주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당은 5월 한달간 모든 미사 (토요 특전 미사, 주일 오전 8시 30분 및 10시 30분 미사, 평일 미사) 30분 전에 묵주 기도를 봉헌하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을 학기 성서 그룹공부반 모집

수업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Zoom)
과목: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서
접수: 5월 9일 (일) ~ 6월 6일 (일)
문의: 이계진 (678-510-6646)
이은경 (404-384-2236)
kmccga.biblestudy@gmail.com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1. 은총쓰기반 2. 목상 컬러링반
3. 원예반(선착순 20명)
* 모든 교재및 부재료 무료 제공
모집기간: 5월 16일부터
클래스 시작: 6월 첫째 주부터
문의: 김유니스 (770-500-7007)

한국 천주 교회사 공부반 모집

모집기간: 5월 16일~6월 20일
수업방식: Zoom으로 시작
문의: 지혜정 (770-380-1327)
adelabig4@gmail.com

성체 조배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애틀랜타 대교구에서는 각 교회 공동체의 성체 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당에서는 6월 4일 (금) 오후 1시부터 6월 5일 (토) 오후 6시 30분까지 대성전에서 성체 조배를 시행하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 KMCC 사진전
“보시니 참 좋았다”

목적: 사진전을 통해 미학적, 생명적, 신앙적 감각 고양

참여방법:

- ◆ 소재 제한 없음
- ◆ 사진 제목 및 설명을 함께 제출
 - 설명에 일자, 장소, 촬영 및 편집방법, 사진 내용, 사진의 의미를 포함 할 것
- ◆ 개인별 사진 작품 1장 제출
- ◆ 다양한 사진 촬영기술 및 포토샵등의 편집 기능 이용 가능

심사 내용 및 방법:

- ◆ 심사 내용
- ◆ 40% - 작품성 (예: 작품의 완성도, 주제와의 일치, 감동 등)
- ◆ 40% - 창의성 (예: 참신한 아이디어, 촬영대상, 접근방법, 촬영 기술 등)
- ◆ 20% - 사진이 내포하는 신앙 및 삶의 의미

제출 마감: 2021년 5월 23일(일요일)

제출 방법: 아래 google form에 접속한 후 주제, 사진(1장), 사진 내용을 제출.

- ◆ <https://forms.gle/FinsU7hek7LnBB6X9>

순위 결과 발표 및 시상식: 6월 6일 (일요일) 주일 미사 후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 주님의 평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크신 보살핌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월28일, 애틀랜타 대교구는 코로나 기간 지속한 미사관면을 성령강림대축일 (5월22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성당 교우분들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핀 후, CDC의 방역수칙과 교구의 전례권고를 바탕으로 본당 미사전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 드립니다.

- ◆ 5월22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부터 신체건강한 교우들은 대면 미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 미사참석자는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본당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 ◆ 성체는 입으로도 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손 영성체가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 ◆ 미사중 성가 합창은 계속 중지하며, 교우간의 신체접촉 또한 계속 금지합니다.

이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과 기타 고위험군(65세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느끼시는 분 등)의 교우분들은 온라인 미사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